

시 정 질 문(서면)

전덕생 의원

□ 질 문

1. 부천의 대기오염 중 가장 문제시 되는 물질은 무엇이며 그 원인과 향후 대책은?
2. 하천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별도의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하는는?
3. 녹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임야가 농지로 변경된 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한상호 의원

□ 질 문

1. 부천시 7개 지역 도시개발계획구역에 대하여 언제쯤 개발할 계획인지 답하여 주시고 소사역주변 (원미구 소사동 2통) 42~43번지와 (원미구 소사동 4개통) 3, 4, 12, 13통 44번지~80번지 심곡2동 (소사천주교회 제외) 489~490번지 전 지역주민들과 상가건물주의 고통이 말이 아니기에 빠른 시일에 현명한 답변을 요하고 있습니다.

당장 도시가스설치문제와 증축, 개축, 봄맞이 내장 수리까지 못 하고 있는 실정과 전세, 월세, 점포 임대차까지 거래가 되지 않아 많은 손해가 있기에 다시 한 번 주민과 공청회를 가지도록 촉구합니다.

2. 분도수녀원 앞 32번지(소사동) 공원조성에 대하여 약 700평 시장부지로 된 토지를 부천시에서 매입하여 삼지공원 하나도 없는 소사동에 공원 및 공영주차장 설치 용의가 없는지(시장님 연두순시에 약속한 곳)

3. 소사역 지하철도에 공항버스 정류장건에 대하여 안산시에서 김포공항으로 운행하고 있는 태화운수 (배차시간 약 20분) 현재 소사구 소사본1동(국민은행 앞) 정류장을 소사역 지하철도에 설치하는데 부천시 교통과는 어떠한지 계획이 있다면 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사역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는 시점에 있어) 경기도청에 의뢰한 결과 빠른 시일에 부천시와 태화운수에게 해결하도록 답변이 왔음.

(자료참조)

최호순 의원

□ 질 문

1. 범박동 재개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소사본3동 11통지역도 범박동 제개발시 함께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함께 추진할 계획은?

강진석 의원

□ 질 문

중동신도시 숙박시설 건축허가 추진결과와 관련한 의문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부천중동지구 도시설계 획지별 건축용도표상 D4구역상에서 당초에는 일반숙박시설상에서는 1층을 제외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1층까지 허용하게 된 사유와 중동지구 도시설계상 유흥시설이 편중설계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2. D4구역에는 학원이 허용되는 구역임과 동시에 유흥 오락시설허가가 허용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고 D4구역의 반경 200M 근거리의 초·중·고교 5개 교가 밀집되어 있고 근거리의 주거지(아파트)가 있는 바, 이와 같은 곳에 숙박업시설을 허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주거환경 침해행위라고 생각되는데 관계공무원의 견해는?
3. 중동지구 도시설계 획지별 건축물 용도표상 숙박업이 허용되는 필지수는 얼마나 되며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비생산적인 소비시설인 숙박업 허가를 IMF를 극복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의원

□ 질 문

1. 시장께서 시민과 대화시 건의한 내용과 시정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2. 화장·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 가. 시직영 납골당 건립의지는?
 - 나. 집행부 자체여론조사 내용 및 시민여론조사 내용은?
3. 관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내용을 밝혀 주시고, 집행부의 조치사항은?
 - 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현행 3억원에서 인상할 방안은?
 - 나. 수출업체 지급되는 수출보험금을 현행 200만원에서 인상할 의지는?
 - 다. 무역(수출)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 및 기술자문인력 지원내용은?
4. 가로수 소독시 주민이 원하면 각 가정 나무도 같이 소독을 실시하여 병충해 예방효과를 증대시킬 용의는?
5. 위생업소 및 유흥업소 점검시 일반시민은 참가시키고 관할구역을 바꾸어 점검할 용의는?
6. 고졸 및 대학 졸업생의 전공 및 취업분야를 조사하고 취업설명회 및 취업알선 대책은?

류재구 의원

□ 질 문

1. 부천시 풍치지구 2,158,762명이 28년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풍치지구 내 용적률이 40~60%로 높아짐으로써 소유권자에게는 현재보다 생활공간이 넓어지고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불 때 도시기반시설의 취약과 인구과다 집중으로 인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2. 상동지구 95만 평 개발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토공의 발표가 있습니다. 부천의 마지막 보루인 이 땅의 개발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 전임시장 당시 상동개발의(유공진용축구장 등) 단지 내 추진코자 했던 시설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는지?

나. 개발시 매립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다. 매립하지 않고 지하 도시화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필요지역만 매립할 계획은 없는지?

라. 상동에 종합대학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3. 부천시 인구가 98년 현재 97년말 778,789명보다 12,680명 줄었고 지금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렵게 임대를 안고 마련한 주택 소유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으나 부천시 생활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은 무엇입니까?

4. 공동주거 시설물인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치된 중앙난방 방식을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얻지 못한 동은 그대로 두고 동별 2/3의 동의를 얻는 동만 아파트 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로 변경허가를 해준 행정의 공동주택 운영 개념에 맞는가?

건교부 유권해석이 동별 허가라 할지라도 공동시설 기본취지에 어긋나게 한 단지 내에 2개의 난방 방식을 허가한 행위는 시설물의 이중투자로 인한 막대한 재정투자와 기본시설의 무용, 주민 상호간의 이질감 등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계속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안은 없는지?

박노설 의원

□ 질 문

1. 제2대의회 당시 제4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시설계획을 현실에 맞게 대폭 축소하여 당초 1,200톤 시설에서 1단계 300톤 시설로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었다.

현재 부천시외 쓰레기 발생량은 재활용을 제외하면 1일 평균 약 420톤 정도다. 앞으로 음식물사료화 시설과 더욱 적극적인 재활용정책을 실시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소각장은 1단계 300톤 시설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의 앞으로의 소각시설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혀달라.

2. 내동 대성가스 폭발사고 당시 부상자들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부상자들의 치료비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 전망, 대책을 밝혀 달라.

서영석 의원

□ 질 문

-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공공근로의 일환으로 복지시설 방과 후 어린이지도 보조교사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천에서도 교육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 2자녀 보육료 감액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자녀들이 길거리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내동가스피해보상으로 인한 기체발행 등은 주민투표에 부쳐 결정했어야 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려고 하는 새주소부여사업 또한 주민투표로 결정해서 결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그리하여 그 지역명을 주민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한다면 주민의 혼란만 가중시킬뿐 애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참여행정을 위해 주민투표실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 “부천에는 왜 물이 없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의 화두일 수 있다고 본다. 친환경적 도시를 만드는데 물이 없이는 절대 만들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연적인 하천이 없다면 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부천시의 경우는 물의 폐수배출량이 제일 많은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삼성전자, 아남전자, 정수장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수를 이용한 인공호수를 만드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삼성전자에서 배출되는 1일 약 3,000톤의 폐수를 도당산에서 자연침하시키고 도당산 주변 여월중학교 뒷편과 여월정수장 사이를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을 베르네천으로 흘러보내 늪지대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5. 부천에는 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락이 없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고, 시정목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부천입니다. 무릇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통해서 세계적인 문화와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립국악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조성국 의원

□ 질 문

1. 적십자회비 수납 방법이 (소사구·오정구)지로 발행 자발적 수납방법과 원미구 할당제(통당)된 이유와 성과는?
2. 경인북복선이 중동역, 소사역을 통과하는데 향후 정착시킬 용의는?

한기천 의원

□ 질 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지금 이때가 우리 의원들이 진정 부천의 기초를 향후 1000년을 향한 반석이 되도록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 진정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 귀소한 손가락질을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모 지역 신문에 의원 밥 한그릇 값이 18,000원이라는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한번쯤은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1. 우리 시는 주지하다시피 토지에 비해 인구밀도가 전국 제1의 도시로서 살기좋은도시 순위 중 하위권으로 여론조사가 됐습니다. 이 같은 사안은 바꿔말해 베드타운 즉, 비생산성 도시라는 말로 풀이된다 할 것입니다.

비교적 중동신도시가 형성되기 전만 해도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꿈을 꿀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신도시 개발 이후 부천은 숨쉬틈조차 없는 뻣뻣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차제에 그나마 색다른 도시로의 전환을 기할 수 있는 마지막 노른자위 상동을 5월부터 택지개발로 착공케 했다는 점은 미래가 없는 부천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입안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 이해선 시장은 상동지구를 영산단지로 만들겠다고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끝에 이젠 베드타운으로 고착화시키겠다는 발상이 시민의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상동을 택지개발화시켜야만 되는지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 상업용지로 남아있는 중동신도시 토지가 아직 약 4만여 평에 이르고 있고 기이 매각된 토지 또한 잔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상당량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남은 토지를 금원으로 환산할 시 그 금액

이 부천 1년 살림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데 아직도 이를 매각키 위한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또 기이 매각한 토지 중 우리 관내 관급공사 시공사에게 공사비의 약 40% 이상을 대물로 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시공사가 토지대물이 과하고 IMF 이후 토지가 하락으로 인한 공사비 상계가 되지 않는다고 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절충되지 않는다면 결국 공사는 중도하차하게 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3. 관급공사시 원청자와 시가 계약 후 모든 대금을 원청에게 현찰로 지불하고 하청업자까지를 관리하지 않아 원청자가 약속어음을 발행 하청업체에 주고 있으며 원청자가 부도시 연쇄부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원종2동 사회복지관과 작동-역곡간 도로공사가 원청업체 부도로 하청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가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이런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위탁복지관이 관내에 여러 곳 있고 이를 위탁운영하는 법인체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식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항간에는 3개 종교단체 정확히 석왕사, 서울신학대학, 가톨릭신대가 2개 내지 3개 이상씩 복지관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일반법인체의 참여의 폭이 매우 협소하다는 지적입니다.

예년과 달리 금년도 복지관 위탁 즉, 고강동 다목적회관, 원종2동 복지관 위탁운영시 1억의 예치금을 넣어라 했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위탁운영 시설장이 몇 개의 시설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제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또 시설장은 전임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명예직으로 그 책임과 결재의 권한이 있는지 묻습니다.